



◀ 지난 6월 2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양돈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 세미나가 개최됐다.

## 양돈협, '해외진출 필요성' 세미나 개최

“양돈산업 경쟁력 확보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할 때”

최근 가축분뇨 등 환경 문제로 양돈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양돈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 양돈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 세미나가 개최되어, 참가자들은 국내 양돈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국내 양돈산업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국내 양돈산업의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농림부 이재용 축산경영과장도 축사를 통해 “양돈산업은 친환경축산이 되어야 지속가능하다”며 “서호주 진출에 대한 오늘 세미나가 앞으로 양돈산업

발전의 하나의 출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호주 농무성 Bruce Mullan은 발표를 통해 서호주 정부가 양돈산업과 같은 농업 수출산업을 강력 지원하고 있으며, 질병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한국 양돈산업이 진출하기에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양돈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주제로 대한양돈협회와 서호주 한국대표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한 호주대사관과 서울대학교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국내 농축산업의 진출 현황은 물론 역사, 각종 질병과 분뇨처리 걱정이 없는 청정국 서호주의 양돈산업 소개와 투자이민 등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양돈**